

나노기술 발전 토론회 6월20일 개최

나노기술의 전문가인 박홍근 하버드대 교수가 6월20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국내 나노기술 전문가들과 함께 하버드대의 나노기술 개발현황, 국내 나노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과제, 향후 발전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박홍근 교수는 과학기술부의 해외 저명 한국인 과학자 초청 프로그램인 울트라프로그래의 4번째 초청자로 방한해 국내 나노전문가들과의 토론을 통해 국내 나노기술 발전방안에 대해 조언할 예정이다.

토론에서 박홍근 교수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주요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나노기술 개발현황 및 방향을 소개하고 최근 연구에 착수한 나노기술을 이용한 뇌 연구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또 세계 최초로 단분자 트랜지스터를 구현하는 업적을 이루게 된 계기 등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연구 노하우에 대해서도 국내 전문가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다.

박홍근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대에서 화학박사를 취득한 뒤 미국 UC로렌스버클리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현재 하버드대 화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 세계최초로 단분자 트랜지스터 구현해 2000년 네이처의 표지논문으로 발표했고, DNA나 생화학무기를 검출할 수 있는 단분자 센서와 탄소나노튜브 센서를 개발하는 등 나노기술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업적을 인정받고 있다. 2003년 호암상을 수상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저작권(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06/20>